

## 칭화대, 자회사 100 개 거느린 '재벌大學'

(매일경제 2005.05.23)

칭화대, 자회사 100 개 거느린 '재벌大學'

매출 2 조 4000 억원...8 년새 20 배 늘어

### ◆중국경제의 견인차 칭화대 (1)◆

세계 경제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이면에는 칭화대(淸華大)가 있다.

간판만 대학이지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100 여 개 기업을 보유한 재벌대학이다.

칭화대가 개발한 연간 800 여 건 기술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33 개 다국적 기업이 칭화대와 중국 시장 연구를 위해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50 여 개 기업이 이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약 2 조 4000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칭화대. 칭화대가 바로 중국경제의 견인차이다.

### ◆ 대학 교수 2000 명이 연구개발에 참여

=칭화대는 중국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 서는 경쟁력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구개발(R&D) 능력이다.

전체 교수진 3000 여 명 중 3 분의 2 정도인 2000 여 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 석·박사 6000 여 명이 교수와 함께 첨단 신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칭화대 기업집단 안에도 기술개발 인력은 1500 여 명에 달한다.

결국 1 만여 명 에 달하는 고급 인력들이 칭화기업집단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다.

칭화대는 핵에너지, 마이크로 전자, 고속정보망 등 3 곳의 종합연구기지를 운영 하고 있으며 CAD, 디스크시스템, 바이오칩 기술, 무연탄 연소기술 등 5 곳의 국 가프로젝트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가 중점실험실이 15 곳으로 전체 중 10%가 칭화에 몰려 있으며 나노 우주 비행 해양과학 바이오정보 등 기존 연구소와 연계된 10 개 새로운 연구센터를 개설했다.

대학 안에 각종 실험실은 100 곳에 달한다.

이 대학 룽융린(英泳霖) 총장비서실장은 "칭화대는 매년 3000 여 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50 개 중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다"고 소개한 다.

칭화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는 3711 개에 달한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11 억 1000 만위안(약 1332 억원)으로 매년 20% 증가하고 있 으며 해외합작연구개발비만도 8900 만위안(약 106 억원)에 달해 한국 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풍부한 연구자원과 함께 칭화대의 독특한 기술이전도 산·학·연 성공의 열쇠 다.

칭화대가 설립한 국가기술이전센터는 기업합작위원회 과학기술개발부 국제기술 이전센터 등 3 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기관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로 연결하고 있다.

기업합작위원회는 학교와 기업간, 과학기술개발부는 대학간 기술합작과 지역간 합작, 국제기술이전센터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로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술이전센터 주링 주임은 "1 년에 평균 800 여 건의 기술이 칭화대에서 기업으로 이전돼 산업화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기술 10 여 건이 칭화대를 통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칭화대가 지난해 기술이전으로 맺은 계약액은 3 억위안(약 360 억원)이며 교수 학생 등 연구진은 기업과 계약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 자회사만 100 여 개

= 칭화대와 관련 기업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지난 80 년 중국 대학 내 처음으로 칭 화기술서비스공사를 설립한 이후 칭화대학이 직접 설립한 기업인 샤오반(校辦) 기업이 100 여 개에 달하고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한 기업도 국내외적으로 160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칭화대학이 설립한 기업집단을 총괄하는 곳은 칭화지주유한공사. 총장 비서실 장인 룡융린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쑹쥘(宋軍) 교수가 총재를 맡고 있다.

지난 2003 년 대학과 기업의 경영을 분리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칭화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칭화지주는 칭화동광(지분 50.04%) 칭화쯔광(29%) 칭쯔(62.11%)

칭화쓰광꾸한

생물제약(21.44%) 타이호과기(24.48%) 베이징완등의료장비(64.86%) 등 모두 6 개 상장사를 포함해 34 개사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다.

또 칭화대와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벤처기업을 비롯해 첨단기술 분야 52 개사의 주식을 보 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칭화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칭화과기원도 칭화과기건설,

칭화쓰 광부동산개발, 베이징칭화투자 등 건설, 부동산개발, 창업투자 분야 14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도 결국 칭화대의 손자기업인 셈이다.

'칭화' 가 들어가는 기업이 워낙 많다보니 지난해 10 월 칭화과기원 산하 기업을 모아 '치디지주회사'로 개편하고 '칭화지주'와 구분할 정도다.

컴퓨터 제품 등으로 1 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칭화대학의 간판기업인 칭 화동광(淸華同方)은 전체 직원이 2600 여 명이며 평균연령은 31 세에 불과하다.

전체직원 중 65%가 칭화대학 출신이며 연구인력비율이 30%에 달한다.

연평균 매출신장률은 100%, 이윤은 50%로 실질적인 산학협동의 결실이다.

지난 97 년 설립된 칭화동광도 12 개 자회사와 14 개 지주회사(주식보유)를 거느 린 종합 IT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어 칭화대학의 기업집단의 세포분열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등록자본금 20 억위안인 칭화지주회사의 1 년 매출액은 200 억위안(약

2 조 4000 억 원)으로 이익금 중 일부가 학교 재정으로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03 년 기준 칭 화지주회사는

기업 순위 116 위를 차지, 대학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몸집이 너 무 커졌다.

칭화지주회사의 사업영역은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회사 수는 많지만 대부분 정보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의약 분야가 대부분으로 문어발식 기업이라기보다는 벤처형 첨단기술 기업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면담에서 물리학박사 출신인 꾸빙린(顧秉林) 칭 화대 총장은 "칭화대학 기업들이 내는 세금 규모와 정부의 대학지원액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부에 기업이이익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학교 재정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칭화기업집단이 지난 2003 년 에 납부한 세금은 5 억 3695 만위안에 달한다.

칭화기업집단은 지난 95 년 매출액이 7 억 7300 만위안에 불과했으나 2003 년에는 1 52 억 2400 만위안으로 8 년 만에 무려 19.5 배나 늘어날 정도로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칭화대 기업집단의 덩치가 커지면서 적잖은 과제를 안고 있다.

꾸 총장은 "학교기업을 운영하다보니 기업의 가치관과 학교의 가치관에서 차이 를 느끼고 있다"면서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생명력이 긴데 기업은 생명력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 윤형식 특파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5.22 18:05 입력

[http://inews.mk.co.kr/CMS/headLine02/headline/6650835\\_3645.php](http://inews.mk.co.kr/CMS/headLine02/headline/6650835_3645.php)